

건강 칼럼

소리 없이 다가오는 간암

간 암은 평균 생존기간이 불과 16개월 밖에 되지 않는 치료 가 쉽지 않은 질병이며, 치료가 잘 되었다 하더라도 재발률이 반 이상일 정도로 재발이 흔한 암이다. 이렇게 심각한 질환임은 분명하지만 최근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 영상의학의 발달로 조기 진단이 가능해졌고 조기에 치료를 받으면 완치도 가능하다. 그러나 간은 침묵의 장기로 소리 없이 암이 발생할 수 있어 정기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 간암의 종류와 원인
간암은 간에 발생한 악성 종양을 뜻한다. 악성 종양이란 우리 몸의 통체를 벗어나 제멋대로 자라고 퍼지는 세포로 구성된 종양을 일컫는다. 간에는 간세포·담관세포·혈관세포 등 다양한 세포들이 있으며, 이러한 세포들이 악성화되면서 암으로 발전한다. 예를 들면 간세포가 악성화 되면 간세포암, 담관세포가 악성화 되면 담관세포암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간에 발생하는 전체 악성 종양의 90% 정도가 간세포암으로 제일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간암이라 함은 간세포암을 지칭하게 된다. 간암은 대부분 만성 간질환 환자에서 발생한다. 그중 만성 B형간염은 우리나라에서 간암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으로, 간암의 약 70%가 만성 B형간염으로부터 발생한다. 만성 C형간염이나 알코올성 간경화도 간암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며, B형 또는 C형간염은 미세한 바이러스가 간세포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질환이다. 최근 반세기 동안 수많은 연구를 통해 B형간염과



최영득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전북지부 원장

C형간염에 대해 많은 사실들이 밝혀지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정밀 진단법과 예방법이 개발됐고 항바이러스제가 치료에 적극 이용되고 있다.

▲ 조기진단이 가능한 간암
간암은 영상검사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만성 간질환이 있는 환자는 6개월마다 간초음파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간초음파 검사는 비교적 간단히 시행할 수 있는 영상검사지만 정확도는 다소 떨어진다. 이러한 단점을 개선한 CT와 MRI 등의 첨단 영상 장비는 1cm 크기의 작은 간암까지도 진단이 가능하다. 크기가 너무 작아서 진단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는 3개월마다 초음파 검사를 시행해 변화를 관찰하며, 영상검사로 확실한 진단이 안 되는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시행해 진단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간암은 조기 진단이 가능한 질병이다. 특히나 만성 B형간염 환자는 간암 발생위험도를 맞춤형으로 계산해낼 수 있어서 혈액 검사 결과로 개별 환자의 위험도를 추정할 수 있다. 만성 C형간염과 알코올성 간경화 환자로 간암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정기검사의 대안 수많은 연구를 통해 B형간염과

6개월마다 초음파 검사와 암표지자 혈액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간경화 환자들은 초음파 검사와 CT 검사를 번갈아가 하기도 한다.

▲ 간암의 치료법
간암의 치료법은 다양하며 적절한 정기검진으로 초기에 발견되면 완전한 치료가 가능하다. 치료법으로는 수술·고주파소작술·간동맥화학색전술·방사선치료·간식·항암치료 등이 있으며, 각 치료는 장단점과 제한점이 있고 비용도 다르기 때문에 상태를 정확히 판단해 최적의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료법의 선택은 종양 크기와 개수, 혈관침범 여부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이와 함께 간 기능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도 치료방침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간 기능이 좋으면 여러 치료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가장 확실한 간암 치료는 수술로 종양을 잘라내는 것이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지내다가 발견된 환자는 상태가 진행돼 수술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수술은 종양을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합병증이나 입원기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다. 최근에는 수술을 최소화하기 위한 복강경 간절제

가 사용되고 있다. 간식도 확실한 치료법의 하나이며, 간경화를 동시에 치료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건강한 간을 얻어야 가능하다. 간식을 받은 경우에도 간암이 재발할 수 있고 면역억제제 사용 등 평생 관리가 필요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꾸준한 관리가 중요

간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전신 상태가 양호해야 하기에 균형적인 영양 섭취·금주·금연·적절한 운동이 중요하다. 영양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기류와 채소류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짜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건강식품이나 생약, 민간요법, 인터넷이나 잡지 등에 떠도는 근거 없는 치료는 멀리해야 하며, 약 복용이 필요한 경우는 의사에게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처방 받아야 한다. 술은 간에 추가적인 손상을 주므로 절대 금주해야 하며, 운동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변비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필요하다면 A형간염 예방접종을 받고, 가을철에는 독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다.

간암 환자는 간암 치료 외에 원인 질환의 치료, 즉 B형간염이나 C형간염 치료도 같이 받아야 한다. 국내 간암치료 수준은 세계적이지만, 간암의 특성상 5년 생존율이 20%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진단 당시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고 치료 후 재발률도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암 위험도가 높은 만성B형간염, 만성C형간염, 알코올성 간경화 환자는 6개월마다 간암 검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설

기업 생존률 끌어 올려야 한다

도내 기업들의 생존률이 어떤지 궁금하다. 전국 최하위라는 보고가 있었는데 9월도 하순인 지금,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는지 알고 싶은 것이다. 올 여름 군산 조선소의 폐쇄와 협력업체들의 줄도산을 생각할 때 그 대답이 뻔한데도 그렇다. 더 악화됐으면 악화됐지 나아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짐작에도 불구하고 지역 기업들의 생존률을 끌어올려야겠다는 바람에서 말이다.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나라가 안팎으로 어수선하지만 전북도는 중심을 잡고 할 일을 해야 한다. 지역의 급한 현안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어야 한다. 도내 기업들의 생존률 통계 보고를 보면 그동안 얼마나 험난한 세월을 보냈는지 알 수가 있다. 전북도는 지금 그 무엇보다도 지역 경제를 우선 열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영세 기업들은 물론이고 중소기업들 쪽에서 밝은 소식이 전혀 들리지 않고 있는 요즘이다. 그동안 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지만 별로 달라진 게 없으니 그럴 터이다.

전북도는 지역 경제의 흐름이

어려울수록 중소기업의 형편을 살펴야 한다. 최근에 해외 수출이 나아졌지만 그게 반짝 효과로 끝날지 알수 없는 요즘이다. 늘 그랬거니와 돈이 돌지 않는 전북 경제는 정체된 상태이다. 저변에 보드된 그대로 평균잡아 도내 기업들 상당수가 개업 5년 이내에 문을 닫고 있다니 난감하다.지역 경제가 오래 경직된 것에 대해서 전북도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하다. 오래전부터 기업인들은 체감 경기를 안 좋게 말하고 있는데 트럼프와 김정은의 도발적인 발언과 행동이 더해져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는 요즘이다.

전북도더러 기업 생존률을 끌어 올려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지금까지 지역 경제를 받쳐주는데 그 역할이 컸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기업 생존률 최하위 기록에 대해 생각이 많아졌다. 예전처럼 행정적 인센티브를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떻게 하면 재류를 다 할 수 있도록 해줄까를 고민해야 한다.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전북도는 기업 생존률을 끌어 올려야만 되겠다.

예산 확보를 위해 긴장해야 한다

전북도는 이번 정기 국회를 응시하는 눈으로 보아야겠다.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이다. 예산안을 다루는 정기 국회에 눈을 떼지 않는 가운데 전북도는 어떻게 하면 도민의 바람대로 7조원 예산 시대를 열 것인지 궁구해야 한다. 저변에 흉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전북의 예산을 깎는 따위의 방해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2023 세계잡버리' 새만금 현장의 토크콘서트 일정을 위해 지난달 말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도지사와 악수를 하며 한 말이 그것이다. 물론 홍 대표의 말이 듣기 좋으라고 하는 덕담 수준에 그칠지, 진정성이 있는 실천의 말이 될지, 나중에 두고 볼 일이라는 하다.

전북도는 예산 확보를 위해 능동적으로 뛰어아왔다. 저변에 도지사와 두 부지사가 내년도 예산을 위해 발빠른 행보를 보여줬는데 그것만으로는 2%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국토의 모든 지역이 고루 발전해야 하는데 우리 전북은 지난 수십 년동안 그 예 아니다. 그래서 전국의 다른 광역시도와 비교해 낙후의 모습이 뚜렷하다. 이런 모습은 국토의 균형 발전론

과 맞지 않다.

전북도는 '전북 자존시대'를 천명했으므로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다른 지역의 예산 증가율에 비해 전북의 예산은 겨우 10% 정도를 따라가는 형편이었으니 말이다. 그것은 지역 차별이 없도록 문재인 정부가 잘 알아서 해줄테지만 그래도 안심하거나 방심해서는 안 된다. 전북도는 도민의 정서가 어떠한지 헤아려야 한다. '전북 흉대'가 한두 해도 아니고 수십년 동안 그랬었으니 낙후가 표나도 크게 표나고 있다.

다시 말하기 부끄럽거니와 지난해 전북의 경제 성장률은 0%였다. 전국에서 유일한 기록이다. 현재 전북 지역에는 최근에 있었던 세계잡버리 대회 유치 소식을 제외하면 밝은 소식이 전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북도는 예산과 관련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해마다 지역 예산이 증액됐지만 그에 대해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다. 전북도는 내년도 예산 확보 문제를 전쟁처럼 보아야 한다. 12월 9일 심의 마지막 날까지 더욱 열심히 뛰어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독자재언

관공서 주취소란, 반드시 근절되어야

야간근무를 하다보면 술에 취해 지구대·파술소로 들어와 다짜고짜 욕설을 해대는 사람, 술을 마시고 나서 집에 돌아갈 차비가 없다며 순찰차로 귀가를 시켜 달라며 막무가내로 때쓰는 사람 등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 야간 지구대·파술소 112신고의 80% 이상은 술과 관련된 신고이다. 그중 주취차 보호 조치는 경찰의 업무이기에 출동하여 도움을 주려하면 아무런 이유없이 모욕적인 욕설과 폭행으로 현장 경찰관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제는 현장경찰관들의 어려움도 있

지만 정작 심각한 상황으로 경찰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급박한 위험에 처해있는 사람이 소중한 골든타임에 도움을 받지 못해 돌아갈 수 없다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우리 모두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과 잘못된 음주문화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경찰력이 진정 필요한 곳에 시기적절하게 사용되어 소중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강릉진 전북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독자재언

음주운전, 말리지 않는 것도 범죄

현재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몇 조에 해당하는 만큼 음주교통사고가 전체 사고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국민적 여론이 음주운전자에 대해 '술 먹고 실수 할 수도 있지'라는 동정적 시선에서 점점 음주운전을 큰 범법행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여론 속에서 경찰청과 검찰청은 2016년 4월 25일 음주운전을 방지할 목적으로 '음주운전범죄'로 처벌한다는 음주운전처벌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음주운전 범죄행위 예시도 제시했다.

첫째,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및 열쇠를 제공한 자 둘째, 음주운전을 권유·독려·공모하여 동승한 자 셋째, 과음자 등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자 넷째,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도 술을 제공한 자 등이다.

이처럼 음주운전을 방조하면 충분히 '음주운전범죄'로 처벌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박재원 전북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